



인상채득방법에 따른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

박 만 수*, 이 석 원, 정 영 철, 한 중 현 |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

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 보철수복의 경우에서 임프란트 fixture 수준의 impression coping를 이용한 인상채득법, 그리고 fixture와 지대주를 연결한 후 자연치와 같이 직접 채득하는 인상법 두 가지를 시행하여 각 경우에 대한 임프란트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를 측정하였다. 이렇게 얻은 변연 적합도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.

1. 직접 인상을 채득한 경우 실패율이 0.0%이었으나 impression coping을 이용한 경우 실패율이 9.0 % 이었다.
2. Fixture의 상부구조가 internal인 경우에 보철물이 실패율이 더 높았다.
3. 두 가지 인상채득방법으로 제작한 보철물의 변연 적합도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($p>0.05$).

4. Beveled chamfer margin을 가진 지대주에서 제작된 보철물이 shoulder margin과 knife-edge margin에서보다 변연 적합도가 우수하였다 ($p<0.05$).

이상의 결과로부터 시멘트 유지형 임프란트의 보철물을 제작할 때에는 변연의 모양이 shoulder나 knife-edge보다는 bevel이 있는 지대주를 선택하고 직접 인상을 채득하는 것이 변연 적합도를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고 생각되며 impression copi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 과정 중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단계에 유의하여 인상을 채득한 후 보철물을 제작 하여야 한다.